



## 지극하게 주인공에 관하면서 마음의 촛불을 켜세요

### 백중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문)** 백중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답)** 옛날에는 자손들을 육 형제나 오 형제나 이렇게 많이들 낳아도 낳는 대로 저저 했지 어린애를 지우거나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어느 사람이 칠 남매를 두었는데 그 칠 남매를 두고 농사를 지어서 가르치고 뭐 하고 하려면 얼마나 그게 참 피맛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위로는 좀 가르치고 그러다가 밑으로 막내를 가르치질 못했어요. 인제는 쇠약하고 저거 하나 위로 큰형들이 좀 도와서 해야 할 텐데 그렇질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냥 먹는 판이어서 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품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부모는 인제 다 돌아가시고 제 가끔들 사는데 막내는 아주 더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 위로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그랬는데도 영 괜찮게 사는 형이 아우를 조금도 돕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형제 집에 가면은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안 가는 거죠. 굶더라도 그냥 안 가고 있는데 인제 어머니 제삿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제 자기가 먹는 밥을 캐다가 말갈게 씻어서 보리죽을 쑤든 쌀죽을 쑤든 이렇게 쉼 가지고는 자기 먹을 거를 퍼서 인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놓는데, 그것도 상에다 받쳐서 놓을 데가 없어서 장독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장독자리도 뭐 원만히 돼 있었습니까만 그 위에다가 놓고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면서, 이렇게 못한 아들 때문에 어머니 제사 때 한번 가 뵈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저 한다고 하면서 그냥 저녁에 잠을 자는데 형제 집을 가니까 그 부모님들이 형제 집을 안 가고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어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 놓은 것부터 먹고 내가 형제 집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보시고 자기네 집으로 오니까 그냥 그 장독자리에 있던 그 죽 쉼 놓은 거를 그냥 방으로 들어가다가 놓고는 그냥 그렇게 맛있게 잡숫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잡숫고선 '야, 난 인제 큰형네 집으로 간다. 잘 살거라.' 이라고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가시더니 그 해에 농사짓는

부잣집에서 마름을 얻었다고. 마름을 얻고 농사를 지어서 참, 집을 한 칸 마련하게 됐고 인제 제대로 좀 밥을 굶지 않고 살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치게 됐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지극해서요, 마음이. 부모로 보였던 부모 아니로 보였던 간에 마음이 지극하니까 그 모두가 감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 데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 아무도 모르죠,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도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전파로 통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극하게 주인공에 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시면은 사는 대로 하다못해 부지갱이 하나라도 늘어갑니다. 그거는 아주 상책입니다.

그래서 철석이다 백중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철석이다 하면은 산 사람들이, 우리가 밝아야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자손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백중은, 내 위로는 조상님들이란 말입니다. 조상님들을 밝게 해 드려야만이 훨훨 털고 나실 수 있는 거예요. 훨훨 털고 나서야 우리 그 종자가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양면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철석이나 백중이

나 마음의 촛불을 켜시라 이런 거죠. 마음의 촛불을 켜시라. 마음의 촛불을 켜고 그 관하면서 그렇게 도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전파가 될 것인가 하고 말합니다.

### 마음드리 모르고 죽는다면 사후는?

**문)** 우리가 마음드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답)** 예전에 치약산 상원사에서 있을 땐니다. 그때 한철, 작대길 들고서 버섯을 따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버섯을 따러 갔는데 아, 가랑잎이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 가랑잎을 헤치면은 싸리버섯들이 굵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 · 최주현

그래서 헤치려고 작대기를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느냐 하면은 그것을 헤치면 반드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헤치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가려 하나까 날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멈추게 하나 하고 생각을 순간 해 보니까요, "당신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찌 그냥 가시려 합니까? 내 말 한마디 듣고 가십시오." 한 겁니다. 그래서 헤치기도 싫고 그래서 안 헤치고서 나는 나대로 "넌 어쩌다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선 그러니? 마음은 다, 물론 그 살림은 살림대로 똑같지만은 모습이 나는 징그러워." 이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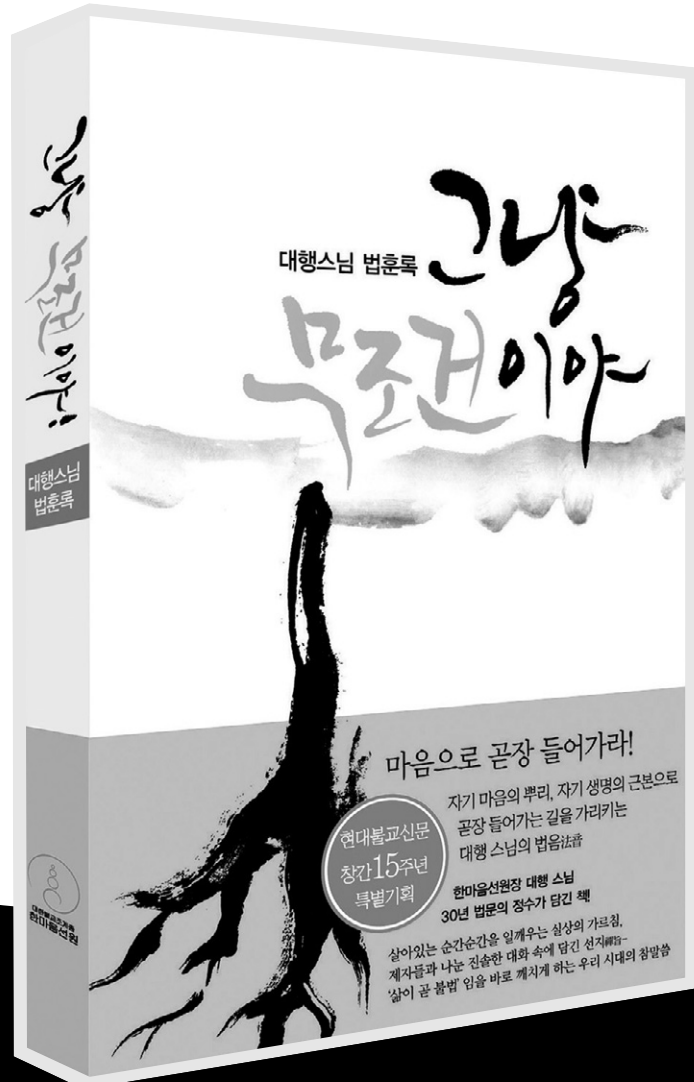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상원사 절의 중이었는데, 내 토굴 내려가기 이전에 고 밭이 있습니다. 밭에 그전에 암자가 있었는데..." 그 얘길 합니다. 암자가 있었는데 상원사에서 아파서 죽게 되면 그 암자로 내려왔답니다. 병자는. 그래서 그 암자로 내려와서 죽게 돼서 죽었는데 그때에, 죽기 전에 그 암자의 수좌로 있다가 주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지가 됐으면 그 돈 들어온 거 모두 모아서 비석도 다시 해 세우고, 그러니까 나무로다 했기 때문에 전부 썩고 갈라지고 썩이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란다는 구실로 다가 그걸 못했다고 이겁니다.

못하고 병이 들어서 그냥 죽게 돼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맴을 돌다가, 예를 들어서 이 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절 근처로 맴을 돌다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니까 돌기둥에다가 돌받침에다가 그냥 그렇게 좋은 잠 튼튼한 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길 들어가서 살면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시에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이게 자기는 자기의 그 감각을 몰랐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 현재 당신을 만나고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걸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 모습을 벗겨 주고 가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돈 해 봤던 거를 그냥 그 다락의 어느 벽에다가 넣어 놓고선, 벽지로 발라 놓고선 그냥 갔답니다. "그랬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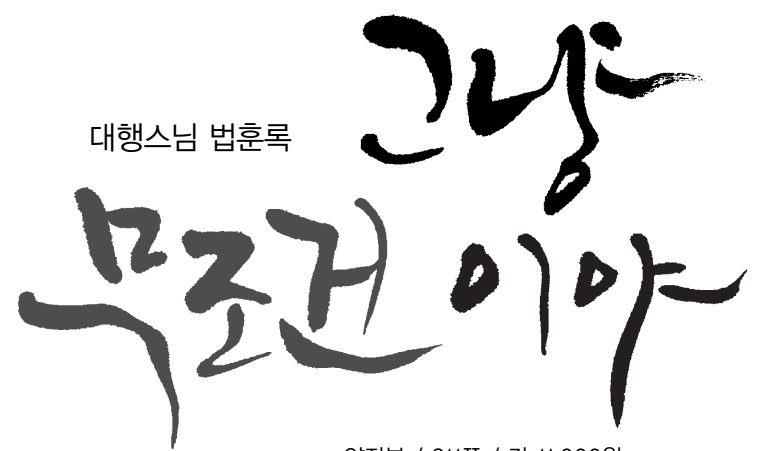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입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 사람은 눈 아닌 눈이 있어야 하고 귀 아닌 귀가 있어야

## 29면에서 계속

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그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스님까지도 내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고 났으니 이 모습을 벗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전자의 중도 없고, 전자의 중도 없었는데 그 뜻은 어디 있으며 지금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순간 붉게 핀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 던지고선 나니, 한숨을 후후 쉬면서 “참 감사합니다. 인제는 이 순간 옷을 벗게 됐습니다.” 하고 수필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한두 건을 본 게 아닙니다. 절 근처로 가면 절 근처에, 또 양이나 돼지 기르고 소 기르는 데를 가면 그 근처에, 사람 사는 근처엔 가면 사람 사는 근처에, 어떠한 집 근처라면 집 근처에, 그저 여기저기 가면 발에 걸리니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만 살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 공부 안 하면 무서운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으로서 배우고 열매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도리를 모르고, 둘이 아님을 모르고, 둘 아닌 데서 참나라는 것이 있는 거를 모르고, 우주 전체와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거를 모를 때, 비로소 너무나 바빠서 한 것은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이 옷을 벗는다면 식(識)만 있지 분별이 없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식만 있어요. 분간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에 아주 눈과 귀를 썩 싸매 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지금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부닥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식만 남았으니 지금 그것을 증명해 보시려면 지금 아주 오관을 딱 가려 보세요, 귀도 막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은 눈 아닌 눈이 있어야 하고 귀 아닌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죠. 그리고 책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뭐가 있지요. 그런데 도대체 식만 남아 가지고서 아니, 보기를 하나, 듣기를 하나?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 도리를 몰라요. 짐이 어떤 짐인지, 요만한 굴속인지 큰 짐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 굴속도 크게 보이죠. 그리고 기와 집으로도 보이고 아주 그 보석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 눈이 없다 이겁니다. 육안에 딱 찬 그 눈은 바로 식만 남아서 생시에 살던 그 식으로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했던 그 식만 남아서 그저 이, 하다못해 돌 틈을 봐도 그 돌기둥으로 보고 돌집으로 보고,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왔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지금 살았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는 없죠. 그저

값싼 말로, 불을 데가 없는데 뭘 불을 게 있어서, 내가 없는데 뭘 불을 게 있느냐고 이렇게들 허영 말해 버리고 마는데 그 무서운 도리는 누가 처리할까요.

그래서 옛날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아 왔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재를 이렇게 놓거나 쌀을 놓거나 그래서 뭐가 됐나 하고 볼 때에 새 발자국도 있고 뽕이 거이 간 것도 있고 또 사람 발자국도 있고 별의별 발자국이 다 난다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식만 남아서 자기가 분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눈 가리고 귀 막고 코를 막아서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밝은

### 『뜻으로 본 반야심경』에서 주문이란?

문) 스님께서 한글로 풀어 놓으신 뜻으로 본 반야심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깊은 미지의 주문은 진실하여 허망치 않음을 알라. 일체 고난에서 벗어나라. 이에 깊은 한마음을 깨닫는 주문을 살라노니...’ 여기서 말하는 주문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건 선지식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거를 한번 뒤집어서 자기 걸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선지식도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불성 주인공에 모든 것을 털어 놓고 놓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그 뜻이 주문입니다. 그 모든 걸 거기가 주문을 해서 놓는다면, 주문이라 그런다면 어디 한 뒤를

따르자면 어떻게 환자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요.

답) 저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도 때에 따라서는 다리도 아파 보고 또 의사도 불러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 봤습니다. 한 번씩, 근데 그게 안 낫던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의사는 게 제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 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먹이려고 엘 쓰지 말고 진짜 소소한 데는 좀 가만히 놔두는 게 외려 결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서 그 관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음식도 뭐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싸도 그저 사람한테 참 좋은 게 있지요. 신선하고 좋은 것은 막 먹어도 괜찮고 비싸지 않으니

니가 괴롭지 않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아프지 않아야 괴로움이 덜하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관법을 좀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간단하게 아주 주인공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저 약을 방편으로 주시되 그냥 정성껏 해야 합니다.

그냥 관하시고 정성껏, 이 마음의 진짜 정성이냐, 의사로서 그냥 약을 지어주는 거냐, 이것이 다르죠. 전부, 의사가 벌어먹기 위해서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진정교 사람은 아프면 정말 모두가 괴로운 것이구나.’ 그리고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그 정성이 지극하게 거기까지 미치지 되죠. 그 사람 속까지 미치지 돼서 그 사람의 병이 그냥 엘 쓰지 않아도 나을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러나 자기의 주인공, 주장자를 진짜로 믿으세요. 그 별성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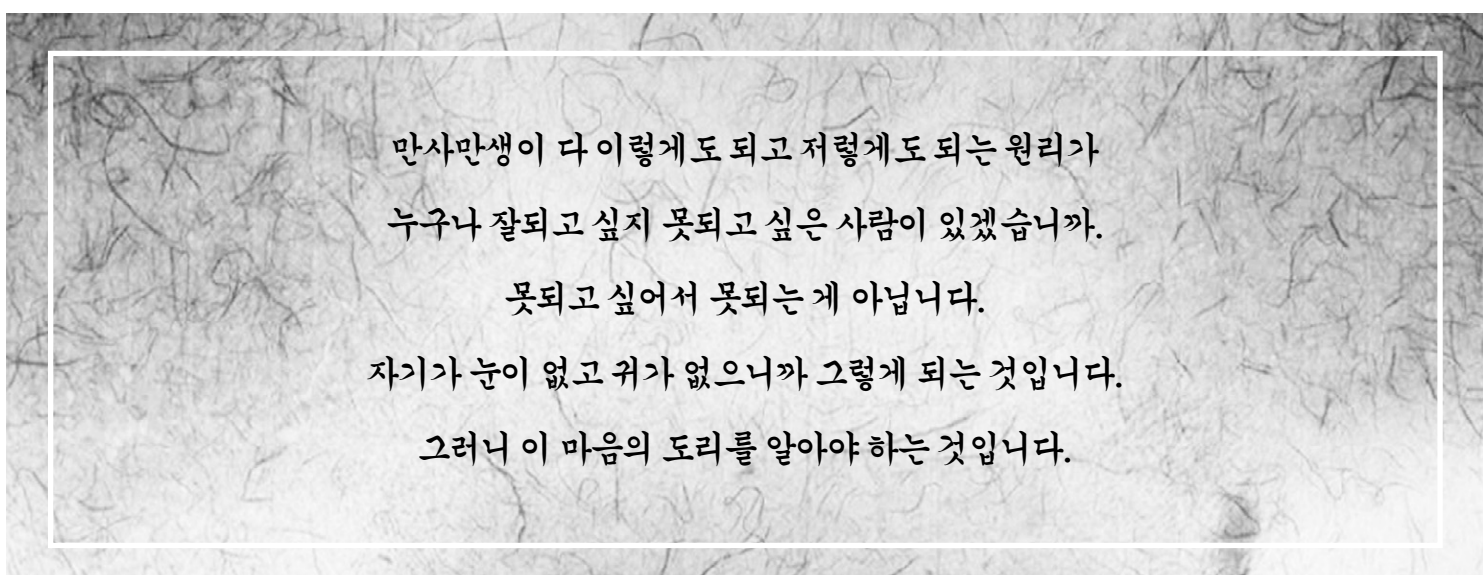
### 아이를 무척 갖고 싶어요

문)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희는 아이를 무척 기다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태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해야 하는지요.

답) 그것이 이 아기가 들어서기 이전에 관하라는 것도, 그게 태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관하라면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관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까, 관하는 도리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대로 관하는 거죠. 그러면 태교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교는 애가 생기기 전부터 태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엄마 아빠가 인연으로 인해서 모습은 형성시키지만 생명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태어날 애가 생명력 원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과거 나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게 보물이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자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달으면 자불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애 못 낳는 것도 그저 태교로다가 하는 것도 되지만, 태교를 하면서도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아들 낳는다 딸 낳는다. 딸을 낳으면 그 가족의 몇 대를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애를 쓰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 관하는 겁니다. 또 남자가 기가 세다 이런다면, 즉 말하자면 남자를 낳게끔 되겠지요. 근데 여자가 기가 세다 그러면 딸을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원한다면 좀 저거 한 사람을 그거를 잘 알고 그저 남편을 잘 먹여서 그기가 좀 일어나도록 관해 주는 거죠. 이게 보고 듣고 그러면 이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봐서 하는 겁니다. 봐서 관할 때 그렇게 관하고 그러면 그게 태교가 되는 거죠.



불빛을 못 봐요. 내 마음의 불빛이 없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부처님의 그 뜻은 만사만생이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원리가, 누구가 잘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 그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공부의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가 눈 가리고 코 막고 귀 막고 다 이렇게 어주... 송장이 무엇이든 그 무엇을 분별하겠습니까? 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하면은 그것은 썩지도 않은 그 송장이 왜 썩지 못합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선천적인 식만 남아서 이리 저리 이렇게 자기가 분간을 못하고 캄캄하니까 암흑인데 어떻게 발을 한 발 떼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서운 도리죠.

놓고 주문을 하는 게 되지만 이건 주문이 아닌 주문입니다. 나 아닌 나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와 자기 아닌 자기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서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암만 선지식들이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해 줘도, 주문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마는 주문이라고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들이고 낼 때, 자기가 모든 생활하는 데 들이고 내지 않습니까? 들이고 낼 때에 그것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한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놓고 한다면 그 뜻이 밝아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넓어지고 한 발자국에 저 우주를 걸어도 걸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잘 알아서 행하십시오.

### 환자들에게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요

문) 저는 한의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 가르침을

간 좋고, 그런 거 요새 참 좋아요. 비싼 것이 외려 간혹 좋지 않은 일이 많죠. 그래서 없던 병, 이름도 모르던 병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 없는 걸 먹기 때문에 이름 없는 병이 생기죠. 모두, 그러나 이 마음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약이라는 게 이거는 어디에 가도 쓰임새가 되고 어디에 가도 없어지지 않고, 만들려고 엘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줄 수 있고, 또 가지면 자기 게 그냥 되고, 다리 아픈 데는 다리 아픈 약이 나올 거고, 눈이 아픈 데는 눈 아픈 약이 나올 거고,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이 나올 거고, 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하는 거는 그대로 해야죠. 영양을 좀 있게 한다든가 또는 보조를 해서 관장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의사님들이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이 아픈 사람을 많이 접하니까 보시겠지만 그 어디가 아프든지, 많이 아프든지 적게 아프든지 그 아픈 거는 정말이지 괴로운 거예요. 그러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비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 30권 중 제 22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 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명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깊임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생명 에너지를 궁전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열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b>9번 구운</b>	가 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취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b>2번 구운</b>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취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자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사)동국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시가 2013-4호 사단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동조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 법인설립 하실 분 (종단) 문의 환영.**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스 051) 256-8005  
직통 010-3262-1005